

나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아름다움
MEET Y*UR BEAUTY

청소년의 건강한 미의식 형성을 위한
'나다운 아름다움' 발견·창작 프로그램

《Drawing MEET 美》

: 보이는 나를 넘어서,
美를 표현하는 드로잉

김민경(작가, 문화예술활동 교육자)

MEET YOUR BEAUTY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넘어
청소년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입니다.
'2025 MEET YOUR BEAUTY 창작 워크숍'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의식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입니다.

교육명	《Drawing MEET 美》: 보이는 나를 넘어서, 美를 표현하는 드로잉
교육 목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 좋아하는 풍경, 내면의 감정 등 잘 표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시각화하며 아름다움의 여러 형태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외형적 기준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며 드러내고 인식하면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소개	스티커 콜라주, 오일파스텔, 과슈 추상화, 백드롭 페인팅 등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해 참여자는 내면과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름, 감정, 좋아하는 풍경, 마음의 질감 등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를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QR 코드로 기록하여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소통을 체험한다. 참여자는 이를 통해 아름다움의 다양함을 느끼고, 감각적 탐색으로 자신만의 미적 경험을 확장한다.
교육 대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미디어/매체	#미술기법 #내면표현 #오일파스텔 #과슈추상화 #백드롭페인팅 #감각탐색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무단 전재 또는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01 발견 2

나의 이름과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시각화하며 ‘나다움’ 가볍게 탐색하기

02 표현 4

다양한 미술 기법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자신만의 감각과 취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03 공유 12

전신 등신대와 QR코드를 통해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며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04 운영 포인트..... 12

1. 발견 단계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평소 생각을 시각화하며, 외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경험을 가볍게 시도한다. 이름과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취향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1회차. 내 이름으로 빛나는 아름다움 (스티커 콜라주)

- ▶ 참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자유롭게 오리고 스티커로 꾸미며, 선택과 표현의 즐거움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가볍게 탐색한다. 또한 이름으로 표현된 친구들의 작품을 관찰하며, 다양한 표현 방식과 개성을 이해한다.
 - ▶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색과 무늬로 꾸미고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취향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물, 음식, 캐릭터 등 3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스티커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취향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한 스티커를 활용해 이름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참여자들은 외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었다.
- 또한, 콜라주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그려보는 상호작용 활동으로 이어갔다. 이를 통해 서로의 개성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감각을 기르는 경험을 하였다.

▶ 결과물



1. 발견 단계

2회차. 내가 생각하는 나 (PVC 필름 위 라인 드로잉)

- ▶ 참여자는 실루엣 드로잉을 통해 구체적인 외형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라는 그릇 안에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담아 시각화함으로써 평소 자주 하는 생각들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이를 통해 외적 기준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기반으로 한 나다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1단계 : 참여자는 자연의 풍경, 감정, 마음의 질감 등 평소 표현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새로운 미술 기법을 통해 감각적으로 시각화한다.



2단계 : 스케치를 단순히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평소 생각, 감정, 관심사 등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체를 그리고 오리는 과정을 통해, 선택과 변형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참여자가 자신만의 창의적 해석을 덧붙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3단계: 참여자는 평소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도형을 선택하여 그리고 오린 뒤, 생각을 표현하는 글, 낙서, 이미지 등으로 내면을 자유롭게 시각화한다.

▶ 결과물



2. 표현 단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포즈의 모델 스케치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PVC 필름 위에 ‘나’를 상징하는 실루엣을 따라 그리도록 한다. 이 활동은 외형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윤곽이라는 틀을 자신만의 생각과 관심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활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안내한다. 이렇게 만든 표현물은 디지털화하고 QR코드로 기록하여, 작품과 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전신 사이즈 등신대로 출력해 콜라주와 드로잉으로 재구성하며, 내면과 생각에 집중한 색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작품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소 표현하지 않았던 나다움과 감각을 탐색할 수 있다.

3회차. 자연에서 찾는 나의 취향과 감각 (오일파스텔 화)

- ▶ 참여자는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장면과 좋아하는 자연 풍경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감각과 미적 취향을 발견한다. 오일파스텔을 활용해 재료와 색을 관찰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미적 인식을 확장한다.



▶ 순서

- (1) 참여자는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자연 풍경을 상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 이미지를 직접 써칭을 통해 찾아보며 탐색한다.
- (2) 오일파스텔을 활용해 문지르고 비비며 재료의 질감을 체험하고, 자연의 형태와 색을 관찰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3) 노을, 바다, 산 등 다양한 자연물을 그리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 다채로운 자연 풍경을 시각화하며, 자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린 시각과 감수성을 경험한다.

2. 표현 단계

▶ 결과물



2. 표현 단계

4회차. 한 조각의 나다움 (과슈를 활용한 감정 추상화)

- ▶ 화가 칸딘스키처럼 감정을 기호와 색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시각 언어로 전환하는 기법을 시도해본다. 감정 그림 카드를 활용해 현재의 감정을 탐색하고, 그 감정에서 느껴지는 색을 선택한 후, 감정과 좋아하는 것을 도형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과슈 물감을 활용해 '나만의 감정 언어'를 구체화하는 경험을 한다.

▶ 순서



1단계: 참여자들에게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 다양한 감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자신의 느낌을 떠올리며 그 감정과 유사한 그림 카드를 탐색하도록 한다.



2단계: 그림 카드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의 색과 형태들을 추출해 내고, 감정과 그에 관한 언어들을 도형화한다.



3단계: 마지막으로 과슈 물감을 활용해 '나만의 감정 언어'를 구체화하는 경험을 한다.

▶ 결과물



2. 표현 단계

5회차. Texture Me, 촉감의 자화상 (백드롭 페인팅)

- ▶ 이전 회차의 칸딘스키식 기호적 추상 표현에서 확장하여, 이번 활동에서는 고흐가 즐겨 사용한 마띠에르 기법을 참고해 질감과 물성을 중심으로 감정을 시각화하는 방식을 탐색하였다. 아크릴과 마띠에르 기법을 활용해 색과 질감으로 마음의 질감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을 시각적·촉각적으로 탐색하고 고유한 감각적 미의식을 확장하도록 한다.



▶ 순서

- (1) 참여자는 아크릴 물감과 나이프를 사용해 긁기, 누르기, 쌓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며 물감의 두께감과 질감을 직접 느껴본다.
- (2) 이러한 질감 형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촉각적 언어'로 표현해보고, 색과 표면의 조합을 활용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결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한다.
- (3)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질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평소 그리기에 어려움을 느끼던 참여자들 또한 촉각 중심의 접근 덕분에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창작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 결과물



2. 표현 단계

6회차: 나다움 포즈 촬영 및 디지털 아카이빙 (QR 코드로 '나' 정리하기)

- ▶ 그동안 만들어온 작업물을 디지털로 정리하고, 작품 설명·감정 기록·창작 과정 등을 텍스트로 구성하며 자신의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참여자는 '나다움 포즈'를 선택해 촬영하며, 몸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해보는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을 시각적·언어적으로 정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을 경험하며, 단순한 기록을 넘어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의미 있는 정체성 탐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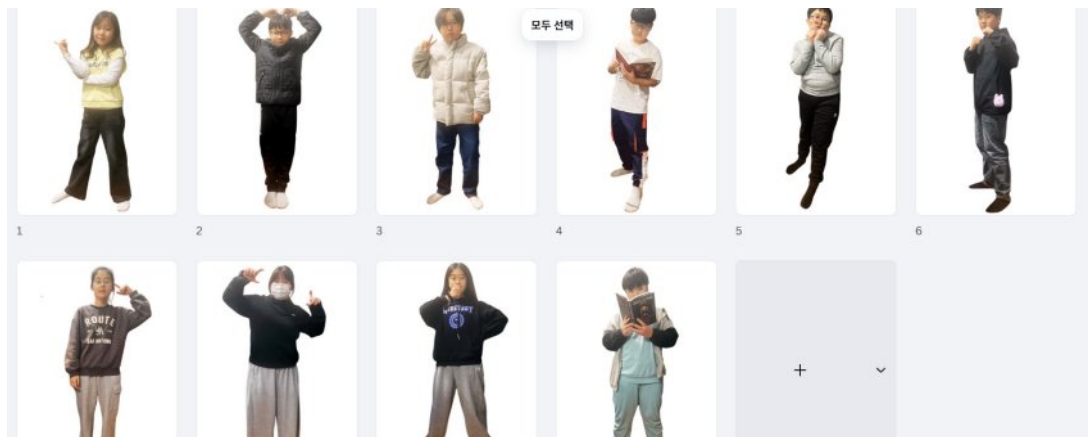


- (1) 지금까지 완성한 작품들을 촬영한 뒤 패들렛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글로 정리한다.

2. 표현 단계



(2) 네이버 QR코드를 활용해 패들렛의 작업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을 생성하여, 자신의 작업물을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연동한다.



(3) 마지막으로 '나다운 포즈'를 선택해 촬영하며, 몸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2. 표현 단계

7회차: 전신 등신대 드로잉 및 콜라주 작업

- ▶ 참여자는 전신 크기로 출력된 자신의 등신대를 마주하며, 그 위에 드로잉·콜라주·텍스트를 자유롭게 더해 '나다움'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였다. 아크릴 마카와 스티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신체 이미지를 변형·재구성하면서, 단순한 외형 꾸미기를 넘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생각·취향·감각을 표현했다. 전신 크기의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잠시 어색함과 신기함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을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데 몰입하며 '나다움'을 보다 주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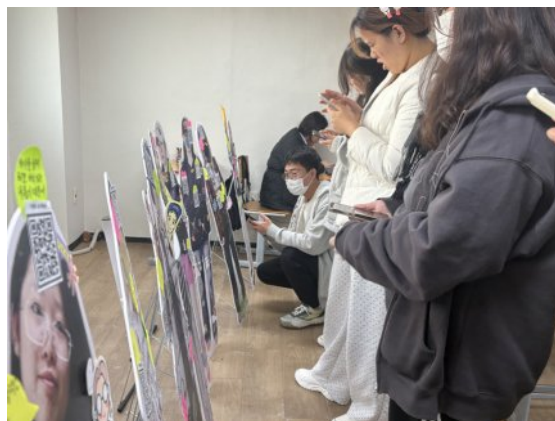


3. 공유 단계

참여자는 친구를 단순히 외형이나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감정, 취향, 그리고 표현 방식까지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친구가 어떤 마음과 이야기를 담아냈는지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거나 반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읽고 공감하는 경험을 한다.

8회차. 전신 등신대 감상 & 나눔

- ▶ 참여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신 사이즈 등신대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말풍선, 하트 등 다양한 도형에 추가로 표현하고 싶은 문구를 적어 콜라주를 완성한다. 이후 서로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한 내용을 기록하며 친구들의 내면과 생각을 주고받는 경험을 나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시각적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3. 공유 단계

▶ 최종 결과물



4. 운영 포인트

- ▶ 아름다움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참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 (이름, 생각, 감각) 등을 시각화하면서 내면을 탐색하도록 한다.
- ▶ 평소 표현해본 적 없었던 주제- 감정의 질감, 떠올린 풍경의 아름다움, 자신만의 생각을 다양한 미술 매체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 ▶ 전신 등신대를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나를 구체화하는 경험을 한다.
- ▶ 친구들이 표현한 작품을 관찰하며 서로의 개성과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기표현의 폭을 넓히고,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나다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